

본문: 시편 8:1~9

제목: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 1. 아름다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은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고 끝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고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서 다윗은 노래의 처음과 끝을 반복하며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뵙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는 다윗은 높은 하늘과 그 위에서 쏟아지듯 빛나는 별들의 장엄함을 날마다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확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4절의 사람으로 번역된 “עַלְמָאֵל”의 어근은 “병들다”, “약하다”라는 의미이며, 인자로 번역된 “בְּרִיָּאֵל”의 “בְּרִיָּאֵל”의 어근은 “먼지”, “흙 알갱이”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5절), 즉 거의 하나님과 같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기사에도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6~8절을 통해 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을 통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원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능과 겸손의 대표적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하는 입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 2. 하나님과 같은 사람

예술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과 경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 작품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현인들이 사람에게 대해 이렇게 저렇게 정의했지만 결국은 허무주의 또는 인간성의 상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세상은 끊임 없이 죄와 사망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며 자신이 먼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지와 같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래 하나님만의 것이어야 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9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문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같이 만드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먼지와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아름답게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았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더욱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드기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드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됩시다.”

## - 참고 문헌 및 설교

『시편주석 1』 총신대학교 출판부, 김정우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7 시편1』 대한기독교서회, 김이곤 지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설교 (2020/5/8 새벽설교)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 강의 (CBS 성서학당 시편 강의)

본문: 누가복음 6:1~11

제목: 안식을 사는 법

### 1. 안식일의 주인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했던 내용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추수하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더더구나 허용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즉 다윗보다 큰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까?

안식은 안식일과 다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있는 것,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선하였더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완전함과 선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창조의 완전함과 선함이 깨졌고 당연히 안식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의 목적을 창조의 완전함을, 안식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상이한 목적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회복될 참된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안식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심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구원을 통한 안식의 회복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 취해있을 뿐이었고, 이를 부정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2.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구원하심을 통해 안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이루어 갑니까?

그 방법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and 학교 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 여기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은 저

와 여러분은 회복된 안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설교 한문장 요약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을 누립시다.”

#### - 참고 문헌 및 설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신현우 지음

『BST시리즈 누가복음 강해』 IVP, 마이클 월코크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3 누가복음1』 대한기독교서회, 김득중 지음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

본문: 누가복음 10:25~37

제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1.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

율법교사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에 율법교사는 대답했고, 자신의 대답을 긍정하시는 예수께 의도를 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에 따르면 그가 바란 예수님의 대답은 “너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예리고를 잇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들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집행자요 수호자, 교육자로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며,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 이를 무시하고 강도 만난 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자칫 성전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앗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파의 혼혈로, 훗날 스룹바벨의 성전건축을 방해했던 배신자의 후예였습니다. 또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배신자요 이단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보다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처치를 하고, 마을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그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남은 치료를 부탁하며 돌아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신의 민족적 신학적 정체성을 따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자비를 베푼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인가?”를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던가”, 아니면 “이웃이 되기를 거부하든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율법교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 그러므로 오늘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 2. 참된 이웃 되게 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예수께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사실, 이 비유 속에서 강도만난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그저 강도를 만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여겨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비용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치료를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었습니다. 진정한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나의 참된 이웃을 결정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참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생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이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참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과 같은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이웃되어지길 축원합니다.

### - 설교 한문장 요약

“예수님을 닮은 참된 이웃이 됩시다”

### - 참고 문헌 및 설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신현우 지음

『BST시리즈 누가복음 강해』 IVP, 마이클 월코크 지음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설교를 돕는 분석 누가복음』 두란노, 유상섭 지음

본문: 누가복음 19:1~10

제목: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 1. 예수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자

“순결”이라는 의미의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빌붙어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 부자가 된 세리장, 사기꾼이요, 배신자,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민족인 유대인 사회에서 외면받는 존재였으며, 이는 작은 키의 삭개오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권력자였고 큰 부자였지만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께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가난한 목동이 열매에 상처를 내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행위로, 부자인 삭개오에게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체면을 버릴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는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머무는 것은 자신을 그 죄인과 동일시 하는 것이기에 당시의 랍비(선생)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께 약속합니다. 율법은 구제를 위한 소득의 십일조와 훔친 것을 갑절로 갚아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이를 넘어서 구제하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삭개오는 망하게 됩니다. 삭개오도 이를 알지만 기꺼이 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수근거리는 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1~27절 말씀으로 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 2. 예수님이 찾으실 회개의 열매

예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앞선 18장에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께서 권면하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3:8에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은 돌맹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돌맹이 삭개오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는 길, 세속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돌맹이처럼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찾아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 구원의 합당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 - 설교 한문장 요약

“구원의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 - 참고 문헌 및 설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신현우 지음

『BST시리즈 누가복음 강해』 IVP, 마이클 윌코크 지음

『설교를 돕는 분석 누가복음』 두란노, 유상섭 지음